

#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21, David, Bathsheba, Absalom,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기 없는 이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당신은 형제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수업은 어디에 있나요? 응. 앞에  
앉으면 뒤에 누가 빠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온갖 이상한 얼굴들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요. 우연히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형제자매다운 관심을 나타내십시오. 나는 가끔 작은 알림  
이메일을 보내지만, 당신의 한마디는 나로부터의 한마디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그것도 아주 멋진 소식이네요. 시험에 관한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 중 어느 것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Blackboard의 자료를 활용해 보세요.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역사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펼쳐지는 사건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중 상당수는 매일 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 중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알다시피, 그것은  
기억에 남는 종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있나요? 좋아요. 어쨌든. 따라서 작업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름 목록을 플래시카드에 적어 두는 것이 종종 좋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플래시카드에 넣는 과정은 당신에게 좋은 학습 연습이 될 것이며, 물론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도록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논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놓치지 마세요.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불러야 하는 이유... 자, 오늘 우리가 왜 이 시편을 불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서 시편 제목이 그 시편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월요일에 시편을 공부할 예정이므로 월요일처럼 조금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자에 대한 전통적인 임무와 이 시편이 기록된 조건이나 상황의 관점에서 시편 제목이 이 특별한 시편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응, 케이트.

오른쪽. 이것은 다윗의 회개와 고백의 시편, 어쩌면 고백과 회개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밋세바와 우리야의 죄와 그 모든 죄에 대해 나단이 그에게 도전한 후에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부르기에 적합한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부를 때, 또는 적어도 이 부분을 부를 때 마이크를 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위해 바로 이 말씀을 기도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아침 당신 앞에 나아갈 때, 당신께서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치고 병들고 낙심한 이들을 감싸 주십시오. 그들을 당신의 팔에 안고 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데려가셔서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활기차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보살핌과 보호와 부드러운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서, 당신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글쎄,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실제로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간다.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사울이 죽으면서 왕국은 정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갔고, 블레셋 사람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침략했다는 사실 때문에 따옴표 안에 왕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있는 므비보셋이라는 한 아들을 제외하고는 통치 가문 전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만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전히 블레셋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엉망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의 끝 부분에 도달할 때쯤에는 통일된 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흥미롭게도 왕국은 통일될 것이지만, 그 후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불행하게도 데이비드의 삶이 끝날 무렵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역대기, 역대상, 하에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와 상당히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관점을 갖고 싶습니다. 문학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이다. 이것은 건조한 역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으면 허리를 동이고 성경을 읽을 거라고 말하는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메마른 토라였던 부분과는 대조적으로 메마른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훌륭한 문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사무엘 자료는 더욱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보게 만드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안경을 벗고 이 작품이 신성한 영감을 받은 훌륭한 문학 작품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감정적, 개인적 불안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다윗의 삶의 험악한 면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무엘하에서 읽은 밋세바와 우리야에 관한 내용은 역대기 이야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왕국이 분열되면 다음 시험 이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 텍스트의 자료는 이 북쪽 왕국, 즉 연합에서 탈퇴한 지파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나중에 기록되었으며, 그것이 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처럼, 족보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족보에 들어가서 '맙소사, 이 일이 언제 끝나나요? 그리고 앞으로 건너뛰고 훑어보세요. 그 안에는 매혹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족보를 볼 때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오래되고 깨지지 않는 전통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바로 역대기 첫째의 시작 부분에서 족보가 하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그곳의 일부 핵심 지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게 될 또 다른 일은 다윗 왕조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남왕국에 계속되는 다윗 왕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주일 반 정도 후에 왕국이 분열될 것입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곳은 그의 후계자인 다윗 왕조가 계속 통치하게 될 남쪽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왕조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 관해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측면은 경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역대기에서 세 번째로 중점을 두는 것은 역대기 상하로, 왕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성전, 성전 직원,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레위인과 제사장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말했듯이 수요일에는 Samuel King의 내용과 역대기 사이에 상당한 중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단어 대 단어 평행선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문학적 출처에 대한 우리의 메모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간단한 메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도식적이고 단순화된 연대기입니다. 우리는 대략 기원전 2100년에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의 시대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넓은 천년을 생각한다면, 1,000년에 1,000년을 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특정 지점에 있는 위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제 정복자인 여호수아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판사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위에 앉히고 사울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다음 번 시험 후에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400년은 출애굽을 이룬 날짜로 잡았는지 아니면 늦은 날짜로 잡았는지에 따라 정복을 위한 날이거나 12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유닛이 끝났으니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소개를 통해 몇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음,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이름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접할 때 많은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어느 정도 긴장이 생겼으므로 사울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하고 싶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손자와 아들 이스 보셋 을 제외한 그의 아들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아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 보셋 은 누구인가? 나는 그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 보셋 은 누구인가?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하의 처음 두 장에서 그가 등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사라. 그렇습니다. 그는 남은 자의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제국의 왕, 심지어 제국, 사울 왕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중 한 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데이비드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암살될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의 지휘관 또는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사무엘하의 첫 두 장에서 그가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극심한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아브넬은 어떻게 되나요? 응, 크리스틴. 나무에 갇힌 암살롬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 모든 A, 여기에 문제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 이름 중 절반은 A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48%는 J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알아내야 합니다. 응, 첼시. 예, 아브넬도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응, 진저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McBisset을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인데, 왕국이 일종의 붕괴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이 소란스러운 시기에 요나단의 유모가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도망가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을 부양하기로 요나단과 맺은 계약을 통해 그에게 부양할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당신이 정말로 알고 싶은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 가문이 쇠퇴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David 측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더 있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압, 제가 조금 전에 그 사람을 언급한 것 같아요. 요압은 다윗의 지휘관이요 다윗의 군대 대장이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요압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고 싶습니까? 글썄요, 아마도 당신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잔인하기 때문이죠. 그는 정말 잔인하고, 기만적이며, 아마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아브넬을 암살한 사람이고, 비록 그가 다윗에게 말하지만, 아브넬이 아마도 위험하고 배신적인 일을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인지 모르십니까? 아마도 요압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매우 현명하고, 매우 약삭빠르고, 매우 교활하지만, 불행하게도 항상 매우 잔인하기도 합니다. 암논과 다말은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이야기는 대체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응, 시도해보고 싶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나요? 암논과 다말은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점에서 여러분이 약간의 수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복 형제 자매라고 부르자. 그들은 다른 부모, 다른 어머니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타마르를 강간했고, 그래, 그게 다야. 그렇죠, 다말은 한 어머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친오빠인 압살롬이 아닌가요? 그리하여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빼앗아 강간한 암논에 의해 완전히 망가진 누이 다말의 명예를 복수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살롬의 다른 활동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암시하는 바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이 책의 중간 부분에서 다소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뭐, 다윗이 취한 사람이 밧세바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가족 생활에는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는 진행 중인 스토리라인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것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할 것입니다. 글썄, 여기에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새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글썄, 적어도 그중 하나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 캐릭터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가세요, 사라. 응, 그 사람들은 상담사들이지, 그렇지?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의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그들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사울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울보다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사울을 현장에서 쫓아냈고 사울의 사람들도 현장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을 상대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기본적으로 왕국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므로 이것은 압살롬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후새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한다면 그들을 스파이이자 반대 스파이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정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특히 후새는 압살롬 편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단과 갓의 직함은 무엇입니까? P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이름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응, 진저?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했어야 할 일을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내가 말한 방식이 마음에 드나요? 별로 섬세하지 않죠? 좋아요. 다른 질문이 있나요? 응, 레베카.

후새는 누구 편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아. 후새는 압살롬 편인 척 하지만 사실은 다윗 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글쎄, 조금 더 계속해보자. David와 David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조금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다윗의 성격과 사울의 성격의 대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에 관해 약간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에도 사무엘상, 특히 23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카엘라까지 올라가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하에서는 예를 들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헤브론이나 헤브론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응, 트레버. 응. 그는 주님의 권고를 구할 때 그리움과 소란을 이용한다고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고만 나옵니다. 네, 질문이군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에봇의 일부, 흉패의 일부, 에봇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에봇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의사결정의 수단이었던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8장부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비 뽑기와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비를 뽑으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종종 이러한 대답은 예 또는 아니오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이론은 이것이 논의될 때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그것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는 신의 신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응답을 구할 때마다 그런 장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David가 이것을 매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거기 없으면 안 하는 게 바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나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을 때 우림과 둠밈도 함께 가져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님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추측 그 이상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응, 레베카. 나는 좀 혼란스러웠다. 이 장치들은 신부님이 사용하던 것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이런 것들은 대제사장이 쓸 것이 아니냐? David는 왜 그것을 사용합니까? 이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Abiathar를 겪고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그것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적 대답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힌트를 볼 수 있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 오늘 곧 그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잠시 멈추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자손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자신을 궁극적인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세우실 분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시편 110편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실제로 이 두 역할을 모두 통합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유진 메릴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싶으시다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본문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그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줄 압니다. 그분의 겸손은 언제나 바로 그 앞, 중앙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중앙 부분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매우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비를 베푼다.

압살롬의 경우를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계속해서 또 다시 봅니다. 다윗은 자비를 베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특성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백성이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자비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일부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중 일부를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과제를 읽었다면 사무엘하 8장에 도달했을 때 가던 길을 멈췄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 내용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왕국을 세우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처음에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작은 무언가와 함께 착륙하여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왕국을 건설함에 따라, 분명히 해야 할 몇 가지 잔혹한 일들이 있습니다.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모압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땅에 눕히고 그 줄의 길이를 재어 보았습니다.

두 마리씩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는 살아남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게 복종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 21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은 주님께 여쭙어 그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어겼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주라 하매

그리고 다윗은 그 일곱 개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일곱 명이 죽었습니다. 측정에 대한 일종의 측정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이 빼앗겼습니다. 이 일곱 가지도 역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는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는 전쟁의 사람이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과 역사 속에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의 완벽한 미덕의 모범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글쎄, 할 말은, 사실 할 말은,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헤브론 초기. 이제 정확히 7년 반 동안 지파가 유다 왕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질문으로 제기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합니다. 그것을 질문으로 생각해 봅시다.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그토록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 지파가 그를 왕으로 받아들하려고 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케이트, 그게 답이야? 노력하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주변에 설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말렉 침략자들로부터 유다 지파의 남쪽 부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가 블레셋 왕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지파의 남쪽에 속한 이 지파에게 훌륭한 보호 울타리이자 산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빛을 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에게 빛을 지고 있어요.

이제 그도 베들레헴 출신이므로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헤브론에 가는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곳 말고 그냥 헤브론으로 가보자.

그것은 일종의 유다 지파의 중심 중심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설정된 도피성 중 하나였으며, 그 땅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연결되는 일부 여행 경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과정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돌아가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사무엘하의 처음 세 장을 읽으면서 내가 처음부터 분명히 설명한 이 원칙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왕위를 찬탈하는 자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의 자비심과 인간으로서의 그의 태도가 적들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처음 두 장, 즉 실제로 2장과 3장은 아브넬이 사울 편에서 지휘하는 백성이나 사울의 집안과 요압이 지휘하는 백성 사이의 전쟁을 실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장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아브넬을 암살하는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레갑과 바아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암살한다고 생각합니다. 왕, 이스 보셋 . 그들은 그의 머리를 헤브론으로 가져갔고, 다윗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그는 요나단과 맺은 계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돌보기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나중에 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헤브론에서의 초기 시절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요압이 성문에서 아브넬을 그렇게 쉽게 쓸어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 성문 사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이해가 됩니까?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브론에 있는 문이 아니고 하솔이라는 곳에 있는 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이곳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주요 경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고,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문은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었고, 사법 활동도 그곳에서 일어났고, 상업 활동도 그곳에서 일어났으며, 정부의 모든 종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성문이었습니다. 룯기.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이야기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성문으로 가서 그런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조금 후에 압살롬이 성문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흠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정말 정말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창살이 있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양쪽에 방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앓, 예, 여기 여섯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들은 고대 시대의 것입니다. 지금은 구조물과 벽만 남아 있는데, 벽이 이렇게 세워져 덮여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지역 전체를 지나갈 때 요압이 '아, 그냥 성문으로 가세요. 저 작은 방 중 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 방은 공교롭게도 비어 있고 재판관은 거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든 뭐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요압은 아브넬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그런 식으로 보세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주요 활동의 중심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궁전에서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문에서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그림은 상당히 오래된 그림이지만 적어도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사건 중 하나에 대한 약간의 느낌을 줍니다. 기브온 못 이쪽에는 사울의 집의 군대가, 저쪽에는 요압이 지휘하는 군대가 모여서 12명이 일어나서 함께 놀기로 결정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그들은 모두 서로를 찌르고 기브온 못에 쓰러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0세기 초 기브온에서 발굴을 시작하면서 이 웅덩이를 생각해 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헤쳤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브온에 있는 못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약간 흐릿하고 빛바랜 빨간색 미끄럼틀이 있지만 아래쪽으로 향하는 계단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조금 더 계속하자. 다윗이 해야 할 첫 번째 필요한 일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노선을 따라 전진할 때 이를 수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는 예루살렘이 될 도시를 점령할 것입니다.

이제 정복에서 우리는 여부스를 점령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다 지파 바로 사이에 있는 지역에 이 외국 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수도를 유다 지파의 중앙에 있는 헤브론에서 지금의 예루살렘인 여부스로 옮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도시를 점령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그는 분명히 물 시스템을 통해 그 일을 했고, 어떻게든 물 시스템을 통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와 요압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로 오세요. 2010년 5월, 6월, 아직 거기에 넣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옮기는 것이 전략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전략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의 맛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 국경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도움이 되나요? 엄밀히 말하면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도시가 되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서 정치적인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맞죠? 우리가 수도를 우선 다윗의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기고 그것이 베냐민이라면 그것은 다소 불만을 품고 있던 지파들에게 손을 내미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지파는 첫 번째 왕 사울의 출신지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그는 더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응.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통일을 위한 것인가? 네, 통일을 위한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분명하게, 그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아브넬이 왔을 때,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다른 장로들이 그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부족들을 재결합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이것은 그 대가로 그가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것을 조금 뒷받침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이 내용을 연구해 본 분들은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누가 자본을 갖게 되나요? 매우 중요한 두 도시. 컬럼비아 특별구를 개척한 것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체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일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여부스 도시를 점령하고 그곳을 통일의 장소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위협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 바로 위에 있었고, 르바임 골짜기가 예루살렘 바로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봐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여전히 일부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해당 장을 읽으면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들을 상대로 두 번 승리를 거두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블레셋 평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마침내 종교적 통합을 발전시키려는 그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물론 역대기에도 이와 평행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6장 2절.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전체 지역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는 아직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 있습니다.

방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은 Kyrie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David는 여기에 통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3장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카트에 붙였습니다.

Beit Shemesh에도 적용됩니다. 그래, 그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됐고, 더 잘 알았어야 했어, 그렇지 않니? 당신들이 고리와 물건을 통해 막대에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레를 타고 방주에 실려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요 상징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을 얼마나 밀어붙이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거나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NIV에서 섬세하게 또는 훌륭하게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인 축하는 단순히 놀다, 스포츠를 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Yitzchak의 이름 밑에 깔린 단어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관계, 그리고 리브가가 그녀를 애무할 때의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것은 전체 축하 행사의 일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꺼낼 때,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침내 방주를 들어 올린 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여섯 걸음을 걷고 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섯 단계를 밟고 실제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 완전히 다른 톤을 제시합니다.

이번 첫 만남은 조금은 너무 즉흥적이고, 조금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들이 걸려 넘어진다.

방주가 방주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레는 오늘날 수레와 방주를 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안정시키려고 손을 뻗었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저는 작은 접선을 취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용하기에는 바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훈은 배워야 하며, 대개는 어려운 방법으로 배우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로 돌아가라.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거룩함을 모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웃사가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지 말라는 교훈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의 교훈입니다.

큰 기쁨과 경이로움과 자발적인 예배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께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해 특별한 요구 사항을 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마침내 이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황소와 살진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송아지. 레베카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14절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평행 구절을 읽어보면 그가 흰 고운 아마포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어서 아마포 에봇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신부님들 그렇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성직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아마도 여기서 다윗은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바는 없지만 다윗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편 110편이 어떤 맥락에서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흥미롭게도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는데, 이 내용은 7장에 나옵니다. 분명히 그는 방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루살렘 북서쪽 산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아직도 장막이 있습니다. 데이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통일, 종교 통일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제안은 행간 읽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학자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문화 현장에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왕국을 장악했을 때 다윗을 찬탈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록 그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반대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실제로 신을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넓은 문화적 맥락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기서도 David의 동기 중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이 그럴 거예요.

데이비드도 그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샬롬, 샬롬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하심으로 인해 완전히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은 선지자 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그에게 대답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7장 11절 중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며, 그 집은 그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는 먼저 당신의 아들, 당신의 후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악을 행하면 내가 그를 벌할 것이요, 솔로몬은 그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그도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내가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16절 7절, 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물론, 그것은 다윗의 메시아 아들이 오실 것이라는 점에서 온갖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글썬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여기 지도와 우리가 있었던 곳,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 우리 자신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꽤 주의깊게 살펴보면,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겠죠? 바로 거기 있어요. 따라서 여기 아래 유다 지파의 중심인 헤브론에서 바로 위쪽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여기 기랴트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가져온 건데, 이 지도를 보면 꽤 쉬워 보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기랴트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는 약간의 언덕과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일종의 통일된 왕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통치 중 일어난 다른 사건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과 이후 사이의 일종의 그림입니다.

거기 있는 타원은 다윗성의 윤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건 작습니다. 나는 전에 이것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현재의 성전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지을 때는 아마도 그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로 내려오는 산의 작은 돌기둥, 실제로는 따옴표 안에 산이 있는데, 주변의 모든 언덕보다 낮습니다. 이쪽도 높고, 이쪽도 높고, 이쪽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성과 시온 산은 실제로 그 주변의 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다윗이 그의 궁전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여기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 5월에 이스라엘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10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념비적 구조물에 관해 고고학자들이 현재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 이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그 특정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설립되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좋은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썄, 그것을 보고 그 궁전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우리는 이것을 가까이서 보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궁전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쪽의 주택 구조가 아마도 이쪽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은 외국인 혐오 마을인 실완(Silwan)의 현대 마을입니다.

요즘은 거기로 걷지 마세요. 하지만 집들을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 지역에 사람이 거주했을 때, 그 경사면에 있는 집들이 거의 똑같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집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밝혀질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궁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다시 돌아가자. 예, 다윗의 궁전이 여기 있고 저 아래에 집들이 쌓여 있고 어느 날 저녁 밧세바가 그녀의 집 지붕에 있다면요.

그건 그렇고, 그녀는 노출증이 아닙니다. 그곳이 그녀가 목욕을 해야 할 곳이다. David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당신은 그 특정 시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다윗 통치의 추악한 부분으로 인도합니다. 그 자신도 추악하지만 그와 관련된 일부 사람들, 특히 그의 아들들에게도 추악합니다.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단어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찍이에요, 그렇죠, 채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죄가 실제로 다윗의 가족과 궁극적으로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일종의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시켜서 그것을 은폐하고 우리아를 적진에서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공모하여 최전선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요압은 여기서 이 모든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결과 나단은 비유를 전합니다. 이 비유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는 단지 보물이었던 것, 귀중한 보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가져가는 작은 암양 새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은 그 비유가 자신에 대해 들려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Nathan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1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스스로 검토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Nathan은 단지 머리 꼭대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다윗의 남은 생애 동안 다윗의 집에 전개될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자. 9절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의 말씀을 멸시하였느냐?  
당신께서는 헛 사람 우리야를 칼로 치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 살인과 간음이죠? 살인, 성적 학대.

당신은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10절). 그러므로 칼이 당신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다윗의 집안에 폭력과 살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며 축정을 위한 축정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아내를 취하여 가까운 자에게 주리라.

그는 대낮에 네 아내와 함께 누워 있을 것이다. 당신은 비밀리에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대낮에 이 일을 할 것이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대낮에 다윗의 첩들과 함께 잔다.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압살롬은 그 시점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척도대로,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척도 방식으로, 나단이 한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물론 시편 51편 전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며,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데이빗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의 가족에게 평생 영향을 미친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은 금식합니다. 그는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며 애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자 데이비드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다른 아들들을 낳게 될 것이며, 밋세바의 둘째 아들은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맏아들. 그는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 일로 인해 그녀는 완전히 치욕을 당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녀는 압살롬의 친누이이다. 응, 케이트. 데이빗, 내가 잘못 말했나요? 응, 그 사람 엄마는 누구야? 아, 어머니.

암논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일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엔 아히노암인 것 같아요. 나는 돌아가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Ahinoam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났습니까? 네, 솔로몬보다 오래 전예요. 솔로몬은 저 아래 어딘가에 있어요. 사실 서열 8번째죠.

다시 말해보시겠어요? 밋세바 이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히노암이 있고, 그에게는 미갈이 있고, 그에게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무리가 있지만 거기에 다른 몇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들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암논이고 그 다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셋째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압살롬이 다말을 대신하여 복수할 때, 그는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손에도 피가 묻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로 다윗의 장자를 멸절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도망친다.

요압은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압 입장에서는 교묘하지만 매우 불행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그렇게 하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14, 15, 16, 17장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갈 곳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안다.

Zip Zap, 알았어. 여기에 음모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꽤 잘생겼어요. 이것이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그는 좋아 보인다.

14:25. 외모가 잘생겼어요. 그는 모든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 그런데 여기에는 병거와 말과 그보다 앞서 달릴 사람 50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는 외모를 만드는 데 꽤 능숙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문에서 그에게 접근할 때마다 그는 거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는 계속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물론 그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보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15장 12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아히도벨이 한 조언은 하나님의 조언과 같았습니다.

압살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을 자기 편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압살롬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떠난 후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가는 동안, 그리고 제가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때, 그는 후새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좌절시킴으로써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새를 보내 압살롬의 대열에 합류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후새에게 지시한 것은 '너는 거기로 가서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 17장에서는 후새를 통해 아히도벨의 조언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잠시 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압살롬은 16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20절, 아히도벨아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 압살롬이 이르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리고 아히도벨은 16장 21절에서 네 아버지의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진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말한다. 온 이스라엘이 네가 너로 네 아버지의 코에 악취를 냈다 함을 듣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여지리라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쳤더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글썄요, 혐오스럽다, 극악무도하다, 불미스럽다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치적 발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은 이제 내 것이 됐어요, 알았죠? 아히도벨의 또 다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장 1절, 나는 오늘 밤에 12,000명을 선발하여 다윗을 추격하러 출발할 것입니다. 즉, 그가 약할 때, 그리고 그가 도망칠 때 그를 잡으러 가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후새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후새가 '오, 안돼, 안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갇혔을 때 그는 사자처럼 싸운다.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물리서서 힘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추격하십시오. 물론 후새는 다윗을 위해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윗도 같은 일을 하고 군대를 모아 전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새는 아히도벨이 준 두 번째 조언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윗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후새의 반첩보.

일단 그들이 싸우러 오면 압살롬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나무에 걸리고 머리가 나무에 걸리므로 죽을 것이고, 요압이 와서 그를 쓸어버릴 것이다. 다윗아,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자비로운 마음의 극치일 것이다. 아들 압살롬을 두고 울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대적과 대적하는 자에 대하여 이런 종류의 뉘우침을 계속 나타내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까지 거의 위로를 거부한다. 너희 부하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요압은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꽤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장을 읽으면서 왕국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쪽 부족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이 이상해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사건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게 하신 것은 다윗이 다윗에게 진노하였음이라. 흥미롭게도 역대기 21장에서 평행을

이루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역대기 본문에 사탄이 등장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은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신의 지혜를 활용하기보다는 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 대한 반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다윗에 대한 반역, 그리고 다윗 왕조의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장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일들과 조장되기 시작한 반란에 대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David는 계속해서 변호를 매겼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요압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갓이 와서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갓은 그를 꾸짖으며 맞서며, 당신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선택 사항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갓이 이르되 너희가 삼 년 동안 흉년이 들기를 원하느냐? 당신은 적들로부터 3개월 동안 도망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원합니까? 물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파괴하는 천사의 손에 3일간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 천사가 멈추었을 때 그 일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서 이 타작마당과 제물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곳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에는 중요한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말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가 자기에게 타작마당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Araunah도 천사를 보았고 겁에 질려 죽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타작 마당을 줄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값도 없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느냐 그리고 물론 그것이 원칙이다. 희생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에 희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솔로몬 치하에서 일어날 성전 건축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쉬면서 시편을 할 예정인데 지금은 쉬려고 합니다.

안식일 샬롬. 좋은 주말 보내세요.